

“집배원, 지난해에만 19명 숨졌다”...과로사 대책 촉구

“지난해 추석 이후부터 계속 물량 많아”

“무료노동 늘어나고 노동강도 높아져”

“집배원들 화요일 ‘죽음의 날’이라 불러”

우체국 노조가 설날을 한달여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에 “동절기 과로사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9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추석 이후부터 수

도권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 여전히 명절 수준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밥을 새워 구분작업을 하고 집배원들은 한파에도 일몰시 간까지 배달을 이어가야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말 특별소통기를 지정했다고 하

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거나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정책 뿐”이라며 “집배원은 물량 늘어남에 따라 무료노동이 늘어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정본부가 비용절감 시각에서 우편사업을 운영하다보니 구분인력을 늘여오는 만큼 늘리지 않고, 위탁배원의 물량개수도 늘리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집배원이 초과근무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설날이 오기 전 선제적 대책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배달 인력 투입과 현장에 외당은 정책을 요구한다”며 “구분인력 확충과 위탁배원 물량통제 중단, 집배원 고충량 소

포 전가 금지 등 실질적인 대안을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우체국본부 서울지역본부 남상명 수석본부장은 “은평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20년 일했다”며 “집배원들은 매주 화요일을 ‘죽음의 날’이라고 부른다. 금·일에 시킨 물건들이 화요일에 배달되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남 본부장은 “적은 사람이 하루에 100개, 많은 사람은 200개 정도 배송하는데 그날 물량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게 돼도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며 “추위와 싸우는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수용자의 소리 없는 외침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6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1,161명으로 집계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다.

순천시, 동선 숨진 확진자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고발

역학조사 방해 1명·대면예배 강행 등 교회 2곳 고발...교회 1곳 조사 중

순천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확진자와 교회 등을 고발하였다.

순천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위반으로 지난 3일 고발하였다.

해당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주BTJ열방센터를 방문하였음에도 방문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A·B교회 2곳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으로 5일 고발하고, C교회 1곳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교회는 지난달 27일 3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하였고, B교회는 지난달 31일 비대면 예배목적으로 40명이 참석하여 기준인원을 초과한 혐의이다.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교회가 포함되어 80여 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3일 담화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천시는 2021년 새해부터 4일만에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서 ‘가족 간 전파’ 속출...2주새 55가족 200명 확진

“독립공간서 개인용품 사용...마스크 착용 생활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과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 등으로 인해 최근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독립공간을 마련하고, 환기를 자주하고, 가족 간 여행과 행사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6일 광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일 새 가족 간 전파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55가구에 확진자는 200명에 이른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83명의 관련 확진자가 쏟아진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만 11명이 가족이나 지인으로 파악됐고, 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와 조부모까지 확진되는 등 무려 7명이 추가 확진됐다.

23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중인 의사 체육동호회와 관련해서도 식사 모임에 참석한 현직 의사 4명이 최소 1명 이상의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

이밖에 북구 에버그린요양원, 청사

교회 등과 관련해서도 가족 간 n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감염원 불명’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을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발열이나 호흡기 통증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 등교, 출근하지 말고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며 “특히, 유증상 가족은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 생활, 개인용품 사용을 하도록 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휴대폰 사기 문자메시지 주의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 익산의 A씨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문·상담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나 SNS 메신저(카카오톡) 연결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정 기한을 정해 놓고

이 기간에 문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한다는 문구로 속이고 있다.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녀를 사칭,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도록 유도한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익산시는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급 명목의 문자메시지 피해 예방 글을 게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자 피싱 사례에 대

한 소상공인의 민원을 바탕으로 피해 예방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행정당국은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불분명한 개인번호로 연결을 유도하지 않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문자·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고 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